

Exploring Directions for Religious Literacy Education in University General Education

Okhan Yoon
Kookmin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examines how religious education in Korean university general education can be redefined as religious literacy in response to a growing multi-religious and multicultural society. Although religion continues to shape public discourse, ethical judgment, and social conflict, religion-related courses are often marginalized because they are misconstrued as faith transmission. The study aims to clarify the concept of religious literacy in religious education and to propose its public rationale and instructional directions within general education.

[Contents] First, the study analyzed changes in university general education and the tasks of religious education. Second, it reviewed the concept of religious literacy from the perspective of religious education. Third, it examined the publicness of religious literacy from a civic-education perspective; and fourth, it analyzed directions for religious literacy education in university general education based on prior research.

[Conclusions] The study suggests three directions: shifting from doctrinal listing to contextual understanding; setting critical reflection and dialogic competence (rather than persuasion) as learning outcomes; and structurally linking instruction to civic outcomes such as deliberation, mutual respect, and hate-prevention. These implications support outcome-based curriculum design and provide a conceptual foundation for future course development and empirical evaluation.

[Keywords] Religious literacy, General education, Civic education, Publicness, Interreligious understanding, Hate prevention education

* **Corresponding author** Okhan Yoon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Kookmin University)
E-mail : okaiyoon@kookmin.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Religious Education

대학 교양교육에서 종교 문해 교육 방향 탐색

윤옥한

국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다종교·다문화 사회로 전환된 한국 사회에서 종교가 공적 담론과 사회 갈등, 윤리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대학 교양교육에서 종교 교육이 ‘신앙 전수’로 오해되어 주변화되는 문제를 진단하고, 교양교육 맥락에 적합한 ‘종교 문해’ 교육의 개념·공공성·교육 방향을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내용] 이를 위해 첫째, 대학 교양교육의 변화와 종교 교육의 과제, 둘째, 종교 문해 개념의 종교 교육학적 검토, 셋째, 시민교육 관점에서 본 종교 문해의 공공성, 넷째, 대학 교양교육에서 종교 문해 교육의 방향을 선행 연구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공공성은 민주적 숙의, 상호 존중, 혐오 예방의 준거로 정리하고, 이를 교양교육 성과 논리와 연결하였다.

[결론] 대학 교양교육에서 종교 문해 교육은 종교를 특정 신앙의 실천 과제가 아니라 다원사회 시민의 사회 이해와 공적 삶 참여를 위한 해석 역량으로 정당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교리·제도 나열 중심에서 맥락 이해 중심으로 전환하고, 둘째, 신앙 권유가 아닌 근거 기반 성찰과 대화 역량을 학습 성과로 명시하며, 셋째, 숙의·상호 존중·혐오 예방의 시민교육 성과와 구조적으로 연계하는 교육과정 설계가 필요하다.

[주제어] 종교 문해, 교양교육, 시민교육, 공공성, 상호 종교 이해, 혐오 예방

I. 서론

한국 사회는 더 이상 단일 종교적 배경을 전제로 설명될 수 없는 다종교·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기존의 종교 지형은 이주민 증가와 글로벌 문화 확산에 따라 다양한 종교 전통과 신념 체계가 공존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종교는 개인의 내적 신념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적 의사결정, 문화적 가치 형성, 윤리적 판단 등 사회 전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교가 공적 영역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고려할 때, 종교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 능력은 현대 시민 사회에서 필수적인 역량으로 요청된다. 그러나 사회적 영향력의 확대와 달리 종교에 대한 공적 이해 수준은 이에 상응하여 향상되지 못하고 있으며, 종교는 여전히 비합리적 신앙이나 개인적 취향의 문제로 축소되거나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원인으로 단순화되어 인식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인식은 종교를 공적 토론과 교육의 대상으로 다루는 것을 회피하게 만들고, 그 결과 종교에 대한 체계적 이해의 결핍은 혐오 표현과 종교적 편견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Park, 2023: 72; Seong, 2024: 82).

이러한 문제는 특히 청년 세대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대학생들은 종교와 관련된 사회적 쟁점과 담론에 빈번히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자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비판적인 학습 경험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종교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동시에 심화하는 양상이 나타나며, 종교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회피하거나 배제해야 할 영역으로 인식되기 쉽다. 이러한 현상은 종교문맹률 증가라는 개념으로 설명되며, 대학 교육 현장에서도 종교에 대한 기본적 이해 부족이 구조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종교를 사회현상을 해석하는 중요한 변수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Na, & Youn, 2022: 82).

대학 교양교육은 중요한 공적 교육의 장으로 기능한다. 대학 교양교육은 전공 지식 이전에 비판적 사고 능력, 윤리적 판단 역량, 시민적 책임 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며, 복잡한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타자와 공존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 영역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따라서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는 종교 현상에 대한 이해 역시 교양교육이 담당해야 할 주요 과제라 할 수 있다. 교양교육 차원에서의 종교 교육은 특정 신앙을 전제하지 않으면서도 시민의 사회 이해 능력을 확장하는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적 필요성을 가진다(Kim, 2025: 17-41; Na, & Youn, 2022: 81-99; Na, & Youn, 2019: 119-142).

그런데도 실제 대학 교양교육 과정에서 종교 관련 교과는 여전히 교육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주변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종교 교양교육은 신앙 교육이나 선교 활동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 학문적·교육적 영역이 아닌 사적 신념의 문제로 간주해 왔다. 이러한 인식은 종교 교양교육의 제도적 축소와 형식화를 초래하며, 교양교육으로서의 본래 목적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중립대학의 경우 종교 교양교육은 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수단과 보편 교양교육 사이에서 지속적인 긴장 관계에 놓여 있으며, 이는 종교 교육의 성격과 목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배경이 된다(Kim, 2020: 136; Lee, 2025: 156; Kim, & Choi, 2024: 117; Park, 2014: 146; Yoon, 2016: 202).

최근 종교 교육학 및 교양교육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개념으로 ‘종교 문해(religious literacy)’가 주목받고 있다. 종교 문해는 특정 종교의 교리를 신앙적으로 수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사회·문화·역사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다종교 사회에서 시민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으로서, 공적 담론 형성과 사회적 소통의 기반을 이룬다. 나아가 종교 문해 교육은 종교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혐오와 배제를 예방하고, 종교적 차이를 갈등이 아닌 공존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종교 문해는 종교 교육을 신앙 전수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시민교육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재정의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Park, 2023: 42; Park, 2025: 72; Seong, 2024: 81; Shin, 2017: 521-543).

이와 같은 관점은 종교 교육이 종교 간 이해와 공존을 촉진하는 교육적 장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종교를 배타적 신념 체계로 다루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현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은 상호 종교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대학 교양교육의 공적 목표와도 긴밀히 연결된다. 이러한 논의는 협력 종교 교육이나 상호 종교 교육의 가능성을 통해 이론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으며, 종교 문해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근거로 작용한다(Kim, 2023: 154; Lee, 2021: 65; Lee, & Yun, 2025: 65-82).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의식과 선행 연구 논의를 토대로, 대학 교양교육 맥락에서 종교 문해 교육의 개념을 종교 교육학적으로 정리하고 그 공공적 의미와 교육 방향을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종교 교육이 더 이상 신앙 전수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종교·다문화 사회에서 시민 역량을 형성하는 핵심 교양교육의 한 요소로 재정의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대학 교양교육의 변화와 종교 교육의 과제, 둘째, 종교 문해 개념의 종교 교육학적 검토, 셋째, 시민교육 관점에서 본 종교 문해의 공공성, 넷째, 대학 교양교육에서 종교 문해 교육의 방향을 연구 문제로 설정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문제를 통해 대학 교양교육에서 종교 문해 교육의 이론적 토대를 확립하고, 향후 교육과정 설계 및 교수·학습 논의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종교 문해 개념과 종교 교육학적 개념

종교 문해는 특정 종교의 교리나 신앙 체계를 “습득”하는 능력이 아니라, 종교를 사회적·문

화적·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역량으로 논의된다. 특히 종교 문해를 역량으로 개념화하고, 다종교 사회에서 요구되는 공적 이해 능력으로 위치시키는 논의는 종교 문해가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이해·해석·성찰의 능력을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또한 종교 문해를 종교 교육의 목적 논의(무엇을, 왜 가르치는가?)와 연결해 설명함으로써, 종교 문해가 교양교육 맥락에서 종교 교육의 목표를 재정렬하는 개념임이 제시된다(Park, 2023: 71-72; Seong, 2024: 82). 이 개념을 종교 교육학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대학 교양교육에서 종교 관련 교과가 오랫동안 ‘신앙 교육’으로 오해되며 교육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독교 교양교육의 의미를 재정립하려는 논의나 채플 및 기독교 교양과목 운영을 다룬 연구들은 종교 관련 교과가 교양교육의 목표와 접속하지 못할 때 제도적·운영적 차원에서 축소되거나 형식화될 위험을 제기한다. 나아가 종립대학의 종교 교양교육 사례 연구는 종교 교양교육이 대학의 정체성 구현과 보편 교양교육 사이에서 지속적인 긴장 속에 놓인다는 점을 보여주며 종교 교육을 교양교육의 언어로 재구성할 필요성을 시사한다(Kim, 2020: 135; Yoon, 2016: 199).

이러한 맥락에서 종교 문해는 전통적 종교 교육(신앙 공동체 내부의 형성 논리)과 대학 교양교육의 공적 목표 사이를 연결하는 재정의의 준거로 기능할 수 있다. 종교 문해의 확산이 대학 교양교육 차원에서 논의됐고, 종교 교육이 교양교육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개선 방향이 탐색되어 왔다는 점은 종교 문해 교육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즉, 교양교육에서 종교 교육은 ‘신앙을 형성하는 교육’이 아니라, 종교 현상을 이해하고 사회적 쟁점을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요청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은 종교문해를 증가에 대한 진단과 교양교육으로서의 종교 교육 개선 논의에서 확인된다(Na, & Youn, 2022: 81).

또한 종교 문해는 종교 교육을 다종교·다문화 사회의 시민적 과제와 접속하는 교육적 프레임を提供한다. 종교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 단일 종교 중심의 관점이나 가치 판단으로 흐를 때, 교양교육은 공존과 상호이해를 촉진하는 공적 교육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다문화 사회에서 종교의 교육적 수용을 논의하며 협력 종교 교육의 관점을 제시한 연구, 그리고 다종교 사회에서 개신교 대학 교양 교과가 상호 종교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음을 분석한 연구는 대학 교양교육 맥락에서 종교 문해가 지향하는 ‘이해·대화·공존’의 교육 목표를 구체화하는 근거가 된다(Kim, 2023: 153; Lee, 2021: 67).

종교 문해가 ‘종교 교육과 종교학 교육을 매개’한다는 논점은 대학 교양교육에서 실제로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종교를 가르칠 것인가라는 교육 설계 문제와 결합할 때 더 분명해진다. 예컨대 성서 교육을 교양교육의 방법론으로 재구성하려는 논의나, 스토리텔링·디지털 도구 등을 활용해 교양 성경 수업을 설계하려는 연구는 종교 관련 내용이 신앙 고백의 장이 아니라 교양교육의 학습 경험으로 설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세속화된 대학에서 성서 교육을 어떻게 교양교육으로 정당화할 것인지 성서를 교양교육의 ‘고전’으로 재위치 시켜 종교 문해와

연결할 가능성은 종교 문해가 교과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을 포괄하는 교육학적 개념임을 시사한다(Kim, 2016: 41; Choi, 2016: 15; Cho, 2025: 179; Min, 2020: 567).

마지막으로 종교 문해의 종교 교육학적 의의는 공공성의 문제로 귀결된다. 종교에 대한 무지와 감정적 반응이 결합할 때 혐오 담론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은 종교 문해 교육이 단지 ‘지식’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공존의 조건을 다루는 교육임을 보여준다. 특히 종교 문해 관점에서 이슬람 혐오를 분석한 연구는 종교 문해가 편견과 배제의 구조를 해석하고 완화하는 교육적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며, 종교 문해 교육이 대학 교양교육에서 갖는 공공적 필요성을 강화한다.

종합하면 종교 문해는 첫째, 종교를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해석하는 역량으로서의 개념적 성격, 둘째, 교양교육에서 종교 교육의 오해와 주변화를 돌파하기 위한 목적 재정의의 준거, 셋째, 다종교·다문화 사회에서 상호이해와 공존을 지향하는 교육 방향, 넷째, 교과 내용과 교수학습 설계를 포괄하는 교육학적 확장성, 다섯째, 혐오·편견 문제에 대응하는 공공성의 근거를 통해 대학 교양교육에 적합한 종교 교육학적 접근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III. 종교 문해의 공공성

다원사회에서 시민은 서로 다른 신념과 세계관을 지닌 타자와 함께 살아가야 하며 이 공존은 단순한 ‘관용’의 선언만으로 성취되기 어렵다. 공존은 타자의 신념이 사회적 규범과 관행, 정책 판단에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 이해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며, 공적 토론에서 이를 적절히 다룰 수 있는 인지적·윤리적 역량을 요구한다. 종교 문해는 종교를 개인의 내면적 신앙에만 한정하지 않고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으로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공공성을 갖는다(Park, 2023: 41; Seong, 2024: 81).

시민교육 관점에서 ‘공공성’은 특정 집단의 신념을 확산하거나 특정 전통을 우선시하는 목적이 아니라 민주적 공동생활에 필요한 이해·판단·책임의 능력을 길러내는 교육적 정당성을 의미한다. 대학 교양교육 차원의 종교 교육이 종종 신앙 전수로 오해되는 배경에는 종교 교육이 공동체 내부의 정체성 형성 목표와 결합해 운영되어 온 역사적 맥락이 존재한다. 그러나 교양교육에서 요구되는 것은 특정 종교의 교리 수용이 아니라 사회를 읽는 해석 능력과 시민적 판단력의 형성이다. 종교 문해는 교양교육으로서 종교 교육의 목적을 ‘신앙’이 아니라 ‘이해와 성찰’로 재배치함으로써 종교 교육을 공적 교육의 언어로 정당화하는 개념 틀을 제공한다(Na, & Youn, 2022: 82; Park, 2014: 143).

이러한 정당화는 곧 ‘종교 문해의 공공성을 무엇으로 입증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이어지며,

본 절에서는 공공성의 준거를 민주적 숙의, 상호 존중, 혐오 예방의 세 축으로 정리한다. 세 준거는 각각 분리된 목표가 아니라 다원사회 시민교육의 핵심 과제를 종교 문해 교육에 연결하는 논리적 장치이며, 대학 교양교육에서 종교 문해 교육의 교육적 정당성을 체계화하는 기준으로 기능한다.

첫째, 민주적 숙의의 준거에서 종교 문해의 공공성은 종교가 공적 의제와 빈번히 접촉하는 현실에서 시민이 갖추어야 할 이해·판단 역량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된다. 종교는 개인의 윤리 판단과 공동체 규범, 사회운동과 정책 선호 등 다양한 층위에서 사회적 의미를 생산하고, 그 과정에서 종교적 언어와 상징이 공적 담론에 등장한다. 종교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을 때 시민은 종교 관련 주장들을 사실 판단(무엇이 사실인가?), 가치 판단(무엇이 바람직한가?), 규범 판단(무엇이 정당한가?)으로 구분해 숙고하기 어렵고, 공적 토론은 감정적 동원이나 단순한 진영화로 기울 가능성이 커진다. 종교 문해는 종교 현상을 설명하는 지식의 습득을 넘어 사회 쟁점과 연결하여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숙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함으로써 시민교육의 핵심 과제인 숙의 역량 형성에 직접 결합한다(Na, & Youn, 2022: 82; Park, 2014: 143).

둘째, 상호 존중의 준거에서 종교 문해의 공공성은 종교적 차이를 제거하거나 동일화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민적 태도와 소통 역량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된다. 다원사회에서 시민성은 ‘차이를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차이와 함께 사는 능력’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며, 종교 문해는 타자의 신념을 대상화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도록 돕는다. 특히 다문화 사회에서 종교를 교육적으로 ‘수용’하는 방식과 종교 간 공존을 촉진하는 협력적 접근의 가능성은 종교 교육이 갈등의 언어가 아니라 공존의 언어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종교적 정체성이 강한 대학 맥락에서도 교양 교과 차원에서 상호 종교 교육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은 종교 문해 교육이 공적 교육으로서 구현될 수 있는 실천적 가능성을 뒷받침한다(Kim, 2023: 153; Lee, 2021: 65).

셋째, 혐오 예방의 준거에서 종교 문해의 공공성은 편견·차별·혐오의 확산을 예방하는 교육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된다. 종교에 대한 무지는 단순한 정보 부족에 그치지 않고 종교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감정적 반응을 촉발해 왜곡된 인식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러한 왜곡된 인식은 혐오 표현과 낙인, 배제 논리를 정당화하는 토양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종교 문해 관점에서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 담론을 분석한 연구는 종교적 무지와 감정(혐오·공포)이 결합할 때 배제와 차별이 강화될 수 있음을 문제화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이해·해석 역량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대학생들이 온라인·미디어 환경에서 종교 관련 담론에 빈번히 노출되는 상황에서 체계적 학습 경험이 부족할 경우 단편적 정보와 자극적 서사가 인식의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종교문맹률 증가 문제를 제기한 논의는 이러한 현상이 대학 교육 맥락에서 확인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대학 교양교육에서 종교 문해 교육은 혐오와 편견을 사후적으로 교정하는 처방이 아니라, 혐오가 생성되는

인지적·정서적 조건을 약화하는 예방적 공공 교육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Park, 2025: 71).

이상의 세 준거를 통합하면, 종교 문해의 공공성은 공적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이해·판단 역량(민주적 숙의), 종교적 차이를 공존의 과제로 전환하는 해석·소통 역량(상호 존중), 종교적 무지에서 비롯되는 편견과 혐오를 예방하는 교육적 기능(혐오 예방)이라는 논리 구조로 정리된다. 따라서 대학 교양교육에서 종교 문해 교육은 신앙 전수라는 오해를 넘어 시민교육의 목표와 직접 접촉하는 공적 교육으로 정당화될 수 있으며, 교양교육으로서 종교 교육의 교육적·사회적 의미를 강화하는 이론적 기반이 된다(Na, & Youn, 2022: 82; Park, 2025: 71).

마지막으로, 종교 문해 교육이 실제로 공공적 장치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당성의 선언만이 아니라 교육과정 설계가 동반되어야 한다. 종교 관련 교과가 교양교육 과정에서 주변화되는 배경에는 종교 교육이 신앙 교육이나 선교 활동으로 오해되는 구조가 존재하며, 이러한 인식은 종교 교양교육의 제도적 축소 또는 형식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신앙 전수’와 ‘이해 교육’의 구분이 교육과정 수준에서 명료화되어야 하며, 학습 성과 또한 시민교육의 언어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종교 현상을 설명하는 기본 개념 이해, 종교와 사회 쟁점의 관계를 해석하는 비판적 사고, 종교적 차이를 존중하며 소통하는 대화 역량, 혐오·차별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윤리적 판단 역량 등은 종교 문해 교육이 지향할 수 있는 교양교육 성과로 정식화될 수 있다. 종교 문해의 의미와 역할을 종교 교육의 목적 논의와 연결해 검토한 연구는 종교 문해를 사회적 활용을 전제한 ‘역량’으로 파악하는 관점을 제공하며, 이는 교양교육 설계의 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

IV. 종교 문해 교육의 방향

대학 교양교육은 전통적으로 전공 중심 교육을 보완하는 기초 교육의 역할로 이해됐다. 그러나 고등교육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 변화와 대학의 공적 책무에 대한 요구 증대는 교양교육의 목적을 점진적으로 확장해 왔다. 오늘날 대학 교양교육은 단순한 기초 지식 전달을 넘어, 민주 시민성, 사회적 책임, 비판적 사고 능력, 윤리적 판단 역량을 함양하는 핵심 교육 영역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이는 대학이 직업 훈련이나 지식 전달에 국한된 기관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을 길러내는 공적 제도로 기능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한다(Park, 2014: 143; Na, & Youn, 2022: 81).

이러한 관점에서 교양교육은 사회의 복합적 문제를 이해하고, 다양한 가치와 신념을 지닌 타자와 공존하며,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시민 역량을 기르는 장으로 이해된다. 특히 다종교·다문화 사회로 전환된 한국 사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종교는 더 이상 주변적 주제가 아니라 사회 이해를 위한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종교는 개인의 신앙 차원을 넘어

정치, 문화, 윤리, 국제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역사적으로도 사회 구조와 가치 체계 형성에 깊이 관여해 왔다. 따라서 종교에 대한 이해 없이 현대 사회를 충분히 해석하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Kim, 2023: 153; Park, 2023: 41).

그런데도 대학 교양교육에서 종교 교육은 오랫동안 신앙 전수나 종교적 헌신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오해받아 왔다. 이러한 인식은 종교 교육을 학문적·교육적 영역이 아닌 사적 신념의 문제로 축소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그로 인해 종교 관련 교과는 교양교육 과정에서 선택적이거나 보조적인 위치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와 같은 상황은 종교 교육의 교육적 목적보다 제도적 관행이 강조될 때 수업의 형식화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종교 교양교육이 교양교육으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Park, 2014: 143-144; Yoon, 2016: 199).

종립대학의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복잡적으로 나타난다. 종교 교양교육은 대학의 건학 이념과 정체성을 구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을 위한 보편 교양교육의 성격도 동시에 요구받는다. 이에 따라 종교 교양교육은 선교적 목적과 학문적·교육적 목적 사이에서 지속적인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이중적 과제는 불교계 및 개신교 종립대학 사례 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며, 종교 교육의 성격 변화가 불가피함을 시사한다(Kim, 2020: 135; Lee, 2025: 153).

대학 교양교육에서 종교 문해 교육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표 1>과 같다.

기존 연구들은 대학 교양교육에서 종교 교육의 정체성과 필요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해 왔다. 특히 최근 연구는 종교 교육을 신앙 전수 중심에서 벗어나 종교 문해력 함양과 상호이해 증진이라는 공적 교육 목표로 재구성하고 있다. 다종교·다문화 사회 맥락에서 종교 교양교육은 사회 갈등 완화와 시민 역량 형성의 핵심 교육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종립대학을 포함한 대학 전반에서 교육과정·교수학습 방법의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 교양 교육 전체 차원에서 종교 문해 교육의 방향을 체계적으로 통합·모형화한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다.

최근 선행 연구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대학 교양교육에서 종교 교육의 목적을 재정의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종교 교육은 특정 종교를 신앙적으로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교육이 아니라, 종교를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동시에 심화하는 현상은 종교 문맹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되며, 이는 사회적 갈등과 편견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지적됐다(Lee, 2025: 1-16; Lee, 2017: 101-124; Park, 2023: 42). 종교 문해는 특정 종교의 교리나 신앙 실천을 학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종교가 사회와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작동해 왔는지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다종교 사회에서 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으로서, 공적 담론과 사회적 소통의 토대를 형성한다. 나아가 종

<표 1> 대학 교양교육에서 종교·종교 문해 교육 관련 연구

<Table 1> Research on Religion and Religious Literacy Education in University General Education

연도	저자	연구 초점	제목 기반 핵심 내용	종교 문해/교양교육 시사점
2014	박승인	기독교 교양교육 의미 재정립	기독교 교양교육의 의미를 재정의/재정립	교양에서 종교 교육의 목표·정 당성을 시민교육 언어로 재구성 필요
2016	김학철	교양 성서 교육 방법	‘시각적 읽기’를 활용한 교양 성서 교육 방법론	종교 텍스트를 해석·표현 중심 문해로 설계 가능
2016	윤성민	채플·기독교 교양과목 운영	채플/기독교 교양과목 운영의 효율성·운영 방안	운영·거버넌스·성과관리 설계 가 공공성 확보에 중요
2016	최영현	성경 교수법 (기술 활용)	스토리텔링·프레지 기반 교 양 성경 교수법	학습자 참여형·매체 기반 문해 수업 설계 가능
2017	신승범	기독교 인성교육	인성 개념 도출 및 인성교육 방향 제언	종교 문해를 윤리·인성(시민성) 과 연계 가능
2017	이은성	기독교대 인성교육 운영	교양과목을 통한 인성교육 운영 전략	교양과정 내 통합 운영 모델 필 요
2019	나권수· 윤재근	종교 문맹 (문해 필요성)	종교문맹률 증가에 따른 대학 교양 종교 교육 과제·전망	종교 문해의 사회적 필요성(공공 성) 문제 제기 기반
2020	김은영	불교 종립대학 교양 종교 교육	동국대 사례 중심 종교 교양 교육 현황·과제	종립대학에서 정체성 vs 보편 교양 긴장 조정 필요
2020	손동현	교양교육으로서 종교 교육	종교 교육을 교양교육으로 정당화/정의	종교 교육을 교양 성과(역량)로 재정식화하는 논리 제공
2020	민경식	세속화·대학 성서 교육	세속화된 대학에서 성서 교 육의 방향	종교 교육을 신앙 전수 아닌 교 양 이해 교육으로 재배치 필요
2021	이인경	상호 종교 교육 가능성	다종교 사회에서 개신교대 교양 교과와 상호 종교 교육 가능성	종교 문해를 상호이해·공존 교 육으로 확장 가능
2022	나권수· 윤재근	현황 분석· 개선 방안	교양교육으로서 종교 교육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교양 차원에서 종교 교육의 시 민교육 기능 명료화 필요
2023	김진영	다문화사회 협력 종교 교육	다문화사회에서 종교의 교육 적 수용(협력 종교 교육)	종교 문해를 다문화 공존/협력 학습과 연결 가능
2023	양지영· 최준규	가톨릭 초등 종교 교육	가톨릭 초등학교 종교 교육 실태와 원리	‘원리/실태’ 논의는 문해 교육의 목표-내용-방법 종합성 설계에 참고 가능

<표 1> 대학 교양교육에서 종교·종교 문해 교육 관련 연구 (계속)

<Table 1> Research on Religion and Religious Literacy Education in University General Education (continued)

연도	저자	연구 초점	제목 기반 핵심 내용	종교 문해/교양교육 시사점
2023	박범석	종교 문해력 진단·개념	다종교 사회 종교 문해력(역 량 개념·성격·합의)	종교 문해를 핵심 역량 모델로 정식화하는 근거
2024	성혜영	종교 문해력 의미·역할	종교 문해력 의미와 역할(종 교 교육 목적 논의)	종교 문해의 목적론/공공성 정당 화 논리 제공
2024	김현우· 최보라	기독교대 교양과정 모형	소규모 기독교대학 교양교육 과정 모형 연구	대학 여건 맞춤형 교육과정 설 계(모형화)
2024	조성훈	종교 교양과 ‘마음공부’	감정·공감·취사 중심 종교 교양교육 논의	종교 문해를 정서·공감·성찰 역량으로 확장 가능
2024	유선희	종교 교과 ‘고유성’	2022 <삶과 종교> 교육과정 비평적 고찰	종교 문해 설계에서 교과 정체 성/내용 범위점검필요
2024	정문선	다원적 자유 민주주의 와 종교 교육 유형	다원사회에 적합한 종교 교 육 유형 탐구	종교 문해의 공공성을 유형화/모 델화하는 이론 자원
2025	이종철· 윤태홍	고교학점제와 종교 교육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종 교 교육 현황·과제(기독교 학교)	제도 변화 속 종교 교육의 과목 운영/이수 구조 쟁점 제공
2025	이성희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종교 교육 (원불교 종립학교)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종교 교육 현황·활성 화 방안	문해 교육이 교육과정 정책 변 화와 연동되어야 함
2025	김경이	고교 ‘삶과 종교’ 교과서 기반 종교 교육	고등학교 교양교육과 종교 교육(교과서 중심)	종교 문해의 내용 구성(교과서/ 텍스트)설계 근거
2025	황진수	종교적 상상력 (도덕적 상상력)	마크 존슨의 도덕적 상상력 중심 ‘종교적 상상력’ 역할	문해 교육을 상상력/도덕 판단/ 서사 이해로 확장 가능
2025	이인경	종립대학 종교 교육 정체성	개신교 종립대학 종교 교육 정체성	정체성 교육과 교양·시민교육 의 경계/원리 정교화 필요
2025	조내연	성서(고전)와 종교 문해	교양교육에서 고전으로서 성 서(문해 함양 과제/가능성)	고전 텍스트를 매개로 문해 역 량(해석/비판) 강화
2025	박범석	이슬람 혐오와 종교 문해	이슬람 혐오에 대한 종교 문 해 접근(사례 중심)	종교 문해의 혐오 예방/공공성 기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

교 문해의 결핍은 혐오와 배제의 정서로 쉽게 전이될 수 있으며, 종교 문해 교육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이 제시되고 있다(Park, 2023: 42; Park, 2025: 72; Seong, 2024: 81).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대학 교양교육에서 종교 교육은 신앙 형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사회 이해와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 종교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쟁점을 이해하고, 종교적 차이를 갈등이 아닌 공존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민주 시민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 중 하나이다. 종교 교육은 상호 종교 이해와 협력을 촉진하는 교육적 장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교양교육의 공적 목표와도 긴밀히 연결된다(Kim, 2023: 153; Lee, 2021: 65). 결국 대학 교양교육에서 종교 교육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문제는 종교 교육 자체의 존립 여부를 넘어, 대학이 어떤 시민을 길러내고자 하느냐는 질문과 직결된다. 종교 교육을 사회 이해와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의 한 영역으로 재정립하는 것은, 다종교·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적 요청에 부응하는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교 문해 교육은 대학 교양교육의 주변적 선택지가 아니라, 현대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 교육 자원으로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Park, 2023: 41; Na, & Youn, 2022: 81).

대학 교양교육에서 종교 문해 교육은 종교를 특정 신앙의 실천 과제로 제시하기보다, 다원사회 시민이 사회를 이해하고 공적 삶에 참여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해석 역량으로 정당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종교 교육이 교양교육이 되기 위한 요건을 검토한 논의는 특정 종교의 교리·규범·의례 자체를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종교 전통들에 내재한 보편적 가치 지향을 교양의 언어로 다루어야 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종교 문해를 “신앙 전수”가 아닌 “교양 성과”로 재배치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따라서 종교 문해 교육의 방향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의 내용 문제를 넘어 어떤 방식으로 학습자의 이해·판단·책임 능력을 형성할 것인가라는 교양교육의 성과 논리와 결합하여 설정되어야 한다(Cho, 2024: 83-98; Jung, 2024: 185-208; Son, 2024: 1-20).

첫째, 종교 문해 교육은 지식 전달 중심에서 맥락 이해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종교 교리나 제도에 대한 단순 나열은 학습자가 종교를 고정된 실체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고 현실 사회에서 종교가 형성·변동·상호작용을 해 온 조건을 읽어내는 능력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반대로 맥락 이해 중심 설계는 종교를 사회현상으로 해석하는 틀(역사적 조건, 문화적 배경, 사회적 기능과 갈등 양상)을 제공함으로써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해석 역량’으로서의 문해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종교 교과와 ‘교과적 고유성’을 검토한 연구가 종교 이해에서 학습자 이해(종교적 존재로서의 인간), 탐구 대상(초월/실존의 문제), 진술 체계(형이상학·초월 논거), 탐구 방식(삶 중심·관계적·실천적·경험적 탐구)의 차원을 제시한 점은 종교 문해가 사회과학적 정보 제공에만 머물지 않고 종교 경험과 의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루는 설계가

필요함을 뒷받침한다(Hwang, 2025: 17-38; Na, & Youn, 2022: 81; Park, 2023: 41; Yoo, 2024: 217-242).

이 전환이 실제 교육과정으로 구현되려면 ‘목표-내용-방법-성과’의 정합성을 갖춘 설계 원리가 함께 요구된다. 가톨릭 초등학교 종교 교육 실태를 분석한 연구는 학교·교사에 따라 목표·내용·방법이 달라지는 문제를 확인하고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교육을 위해 인간화, 문화적 접근, 교육화, 공동체의 원리를 도출하였다. 이 결과는 대학 교양 맥락과 교육 단계가 다르더라도, 종교 문해 교육이 단편적 정보 전달을 넘어서 “인간 이해-문화 맥락-삶의 적용-공동체적 대화”가 연동되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를 위해 교수자 역량·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Yang, & Choi, 2023: 327-354).

둘째, 종교 문해 교육은 신앙 권유나 가치 주입이 아닌 비판적 성찰을 목표로 해야 한다. 대학 교양교육에서 종교 관련 교과가 주변화되는 핵심 배경에는 종교 교육이 신앙 전수 또는 선교 활동으로 오해되어 공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온 문제가 놓여 있다. 이에 종교 문해 교육은 ‘어떤 종교가 옳은가?’의 결론을 요구하기보다는 종교 현상을 근거 기반으로 해석하고(사실 판단), 공적 기준과의 관계를 따져보며(규범 판단), 자신의 판단을 책임 있게 구성하는(윤리적 성찰) 학습 과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다원적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 적합한 종교 교육 유형을 탐구한 연구가 종교를 공적 영역(공론장)과의 접속 속에서 “지식으로 다루되”, 표층적 차이의 이해에 머물지 않고 타자와의 만남·상호 존중·열린 대화를 통해 자기 이해와 공공적 잘 삶의 포용성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한 점은 종교 문해 교육이 지향해야 할 성찰 목표(대화·숙의·자기성찰)를 구체화하는 근거가 된다(Jung, 2024: 185-208; Park, 2023: 41-67).

셋째, 종교 문해는 시민교육과 구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종교 문해 교육은 종교를 ‘종교 내부의 문제’로 폐쇄하지 않고, 민주주의·인권·다문화 공존 같은 교양교육 핵심 주제들과 종교 현상을 연결함으로써 교육적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적 의제에서 종교적 언어와 상징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현실에서, 종교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으면 시민은 종교 관련 주장들을 사실·가치·규범의 층위로 분해해 숙고하기 어렵고 공론장이 감정 동원이나 진영화로 기울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종교 문해 교육은 공적 토론 참여 능력(숙의), 타자 이해와 존중에 기반한 대화 능력(상호 존중), 편견·혐오의 확산을 완화하는 판단 능력(혐오 예방)을 시민교육 성과로 명시하고, 수업 설계를 그 성과에 맞춰 조직할 필요가 있다(Jung, 2024: 185-208; Na, & Youn, 2022: 81-99; Park, 2023: 41-67).

종합하면, 대학 교양교육에서 종교 문해 교육은 첫째, 교리 나열을 넘어 종교 현상의 형성·작동 맥락을 해석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둘째, 신앙 권유가 아니라 근거 기반 성찰과 대화 역량을 학습 성과로 삼으며, 셋째, 민주적 숙의·상호 존중·혐오 예방의 시민교육 성과와 구조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정교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은 종교 교육을 신앙 전수의 영역에 고정하는 관성을 넘어, 다원사회 시민이 공적 삶에서 종교적 쟁점을 이해하고 책임 있게 판

단하도록 돕는 교양교육의 공공적 과제로 재정립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다종교·다문화 사회로 전환된 한국 사회에서 종교가 공적 의사결정, 문화적 가치 형성, 윤리적 판단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대학 교육 현장에서 종교 이해가 충분히 체계화되지 못해 종교 문맹과 편견·혐오 담론이 강화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대학 교양교육이 비판적 사고, 윤리적 판단, 시민적 책임을 핵심 목표로 재정의되는 흐름 속에서, 종교 교육을 ‘신앙 전수’로 오해해 주변화하는 관행을 넘어설 교육적 준거로서 ‘종교 문해(religious literacy)’ 개념을 종교 교육학적으로 정리하고, 그 공공적 의미와 교육 방향을 체계적으로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 교양교육에서 종교 문해 교육은 종교를 특정 신앙의 실천 과정으로 제시하는 접근이 아니라, 다원사회 시민이 공적 삶에 참여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사회 이해를 위한 해석 역량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종교 문해의 공공성을 민주적 숙의, 상호 존중, 혐오 예방이라는 세 준거로 정리하였다. 여기서 필자가 ‘숙의’가 아니라 ‘민주적 숙의’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종교 문해의 공공성이 단순한 의견 교환이나 합리적 토론 일반만으로는 충분히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종교는 신념, 정체성, 문화, 권력의 문제가 중층적으로 얹혀 있는 영역이므로, 숙의의 장 역시 참여의 평등, 소수자 보호, 차이의 존중, 공적 정당화의 원리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 따라서 종교 문해의 공공성은 서로 다른 종교·비종교적 주체들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견해를 공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상호 비판 가능한 언어로 제시하는 민주적 숙의에 준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민주적 숙의는 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한 관점의 참여 보장, 경청과 반론의 규칙 설정, 종교 관련 공적 쟁점에 관한 사례 토론, 역할 바꾸기와 합의안 작성 등의 방식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이 준거들은 종교 문해를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니라 공론장에서의 이해·판단·책임 역량을 형성하는 시민교육 과제로 위치시키며, 종교 교육이 교양교육의 언어로 정당화될 수 있는 논리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또한 대학 교양교육에서 종교 문해 교육의 실천적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교리·제도 나열 중심에서 벗어나 종교 현상이 형성·변동·상호작용을 해 온 맥락 이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신앙 권유/가치 주입’이 아닌 근거 기반의 비판적 성찰과 대화 역량을 학습 성과로 명시해야 한다. 셋째, 민주주의·인권·다문화 공존 등 교양교육 핵심 주제와 결합하여 시민교육 성과(숙의·상호 존중·혐오예방)로 구조화해야 한다. 이는 종교 교육의 존립을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 대학이 어떤 시민을 길러낼 것인가라는 교양교육의 근본 질문과 직접 연결되는 재구성이다.

이상의 논의는 교육과정 설계 차원에서 몇 가지 함의를 갖는다. 첫째, 종교 문해를 ‘목표-내용-방법-평가’의 정합성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학습성과를 시민교육 언어(사실·가치·규범 판단, 공론장 토론 참여, 혐오·차별 식별과 대응 등)로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앙 전수’와 ‘이해 교육’의 경계가 제도·운영 차원에서 명확히 제시될 때, 종교 관련 교과와 공적 정당성과 수업 신뢰가 강화될 수 있다. 셋째, 교수자 역량 및 지원체계(교수학습 자료, 토론 규범, 갈등 중재 및 안전한 학습 환경 설계)가 확보될 때 종교 문해 교육은 선언이 아니라 실제 교육 경험으로 구현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문헌 기반의 이론적 탐색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대학 교양 ‘종교 문해’ 교과목/모듈의 시범 설계와 운영, 학습성과(숙의 역량, 상호 존중 태도, 혐오 예방 판단)의 측정 및 질적 변화 분석, 종립대학과 비 종립대학 맥락에서의 적용 차이(정체성 교육과 보편 교양의 긴장)를 비교하는 경험적 연구가 요청된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종교 교육을 신앙 전수의 틀에서 분리해 시민교육의 공적 과제로 재정립하고, 대학 교양교육에서 종교 문해 교육의 개념·공공성·방향을 하나의 논리 구조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향후 교육과정 논의의 기초 틀을 제공하였다.

References

- Kim, K. Y. (2025). Liberal Education and Religious Education in High School: Focusing on the ‘Religion in Life’ Textbook in School Religious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81, 17-41.
- Kim, E. Y. (2020). Current status and tasks of religious liberal arts education: Focusing on the case of Dongguk University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63, 135-149.
- Kim, J. Y. (2023). The educational acceptance of religion in multicultural society: Focused on cooperative religious education. *Journal of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45, 153-186.
- Kim, H. C. (2016). Visual reading of the Bible: Bible education as liberal arts education. *University and Christian Mission*, 31, 41-72.
- Kim, H. W., & Choi, B. R. (2024). A study on the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model for small Christian universitie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80, 117-143.
- Na, K. S., & Youn, J. K. (2022). Analysis of religious education status as general education and research on improvement.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71, 81-99.

- Na, K. S., & Youn, J. K. (2019). Task and vision of religious education as a college liberal study with regard to the increase of religious illiteracy rate.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60, 119-142.
- Min, K. S. (2020). How to teach the Bible in secularized colleges and universities: Biblical education as a gener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118, 567-589.
- Park, B. S. (2023). Religious literacy in multi-religious societies: Focusing on competency-based religious literacy diagnosis. *Religion and Culture*, 43, 41-67.
- Park, B. S. (2025). A Religious Literacy Approach to Islamophobia: Focusing on the Analysis of Disgust Emotion and Phobia Discourse. *Religion and Culture*, 84, 71-98.
- Park, S. I. (2014). The Reestablishment of the Meaning of the Christian Liberal Education. *University and Mission*, 27, 143-167.
- Seong, H. Y. (2024). The Meaning and Role of ‘Religious Literacy’: Focusing on Social Application Strategies.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80, 81-108.
- Son, D. H. (2024). Religious Education as Liberal-General Education. *Institute for Liberal Arts and Sciences Education*, 1(1), 1-20.
- Shin, S. B. (2017). Suggestions for Christian character education: Deriving the concept of character and proposing directions for character education. *Theology and Praxis*, 56, 521-543.
- Yang, J. Y., & Choi, J. G. (2023). The reality and principles of religious education in Catholic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Human Studies*, 50, 327-354.
- Yoo, S. H. (2024). Exploring “the uniqueness of subject” of religious education: A critical review of the 2022 Life and Religion curriculum. *Journal of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56(1), 217-242.
- Yoon, S. M. (2016). A study on the effective operation of chapel and Christian liberal education in Kangnam University. *University and Christian Mission*, 31, 199-226.
- Lee, J. C., & Yun, T. H. (2025).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Religious Education in High Schools under the Credit-Based Curriculum: Focusing on Protestant Christian Schools.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82, 65-82.
- Lee, S. H. (2025). Current Status and Revitalization of Religious Education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Revised 2022 Curriculum: Focusing on Won Buddhism-Affiliated Schools.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82, 1-16.
- Lee, E. S. (2017). Seeking an effective approach for the personality education through Christian liberal arts courses in Christian universit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1,

101-124.

- Lee, I. K. (2021). A study on a possibility of Christian liberal arts courses at a Christian university functioning as interreligious education in a multireligious societ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5(3), 65-81.
- Lee, I. K. (2025). Identities of religious education in Christian universities. *University and Christian Mission*, 65, 153-177.
- Jung, M. S. (2024). Exploring types of religious education suitable for a plural liberal democratic society. *Faith & Scholarship*, 29(1), 185-208.
- Cho, N. Y. (2025). The Bible as a classic work in liberal arts education for cultivating religious literacy. *The Journal of Humanities*, 46(3), 179-214.
- Cho, S. H. (2024). Mind study through religious liberal arts education: Focused on emotions, empathy, and mindful choice.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76, 83-98.
- Choi, Y. H. (2016). A study on teaching method of liberal arts course Bible using storytelling and Prezi. *University and Christian Mission*, 31, 7-40.
- Hwang, J. S. (2025). The Role of Religious Imagination in Religious Education: Centering on Mark Johnson's Concept of Moral Imaginat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82, 17-38.